

시모무라 가이난의 조선 체험과 공유*

윤미란**

〈차 례〉

1. 시모무라 가이난과 조선 체험
2. 시모무라 가이난의 조선-일본 교류인에 관한 기록
3. 종전 이후 조선의 체험에 대한 관심
4. 제국주의적 이상주의를 반영한 시모무라의 조선 서사

【국문초록】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정치가, 관료였던 시모무라 가이난은 약 8회에 걸쳐 조선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글로 남겼다. 1928년 조선 기행문에서 시모무라는 조선에 관한 설부른 판단을 지양하는 한편 석진형, 마해송과 같은 조선인과의 교류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편 시모무라는 패전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에서의 종전의 경험을 조사하고 재창작하여 일본의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후지와라 데이가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를 통하여 전쟁에서 여성으로서 직접 겪어야 했던 고통을 드러내려 한 반면 시모무라는 후지와라 데이의 소설을 제국주의적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조선탈출기』로 재창작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조선과 일본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뛰어넘은 인간애를 기반으로 역경을 이겨낸 한 일본 남성 가장의 인양성공기를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시모무라 가이난(小村海南), 조선 체험, 석진형, 마해송, 교류,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 재창작, 공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1. 시모무라 가이난과 조선 체험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 1875-1957)은 1942년 11월 3일 “저는 재능이 부족합니다만, 추천을 받고 좌장 자리를 더럽히게 됐습니다. (중략) 동양 문학계를 대표해 서로가 친밀하게 회합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단지 전쟁을 완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회복한 후 대동아공영권의 신질서를 건설해 가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¹⁾한다는 인사말로 제1회 대동아문학자대회 좌장으로 참여한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관료, 정치가이다. 그는 1898년 체신성(逓信省)을 거쳐 1915년 타이완 총독부의 민정장관을 지내고 1943년에 일본방송협회 회장, 1945년에는 스즈키 간타로(鈴木貫太郎) 내각의 국무대신에 오르면서 일제의 충실한 관료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시모무라의 주요 이력에서 드러나는 대로 그의 관심사 또한 일제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對) 아시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여 중국과 타이완, ‘만주’ 그리고 조선에 두루 있었다. 다만 그의 아시아에 관한 관심은 우선 타이완에서 민정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타이완 체험에서부터 시작되어 중국, ‘만주’ 그리고 조선에 대한 관심과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모무라는 타이완 총독부의 민정장관을 지낸 이후 1921년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에 입사하여 전무, 부사장에 역임한다.

한편 시모무라는 가인(歌人)으로서 사사키 노부쓰나(佐佐木信綱)가 주재하는 잡지 『고고로노하나(心の花)』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고 가집(歌集)²⁾을 내는 등 문학활동을 하는 한편, 골프 관련 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글을 발표하고 책으로 엮었다. 시모무라의 글쓰기 활동은 일제의 대내외적인 정책의 취지를 이어받아 ‘대동아사상’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가로 활약할 때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시모무라는 자신의 체험을 단가(短歌), 기행문, 논설, 평론, 에세이 등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로 창작하였고 그것들을 모

1)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광형덕 옮김, 소명, 2019, 10~11쪽.

2) 下村海南, 『天地: 歌集』, 博文館, 1929; 『白雲集: 歌集(心の花叢書)』, 日本評論社, 1934; 『蘇鉄(新日本歌集)』, 八雲書店, 1945.

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모무라 가이난의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조선에 관한 관심과 체험이 드러난 텍스트를 찾아 소개, 분석하고 그의 조선 관련 글쓰기의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나병 정책(시모무라의 글도 포함)에 관한 연구³⁾와 시모무라의 조선 기행에 관한 선행 연구⁴⁾를 기초로 하면서 두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시모무라의 조선에 대한 관심과 그의 미를 보다 세밀히 추적하고자 한다.

시모무라 가이난과 조선의 첫 인연은 1902년 인천에서 생겼다. 중국에서 일정에 변수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인천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어와 일본지폐가 통용되는 조선(인천)을 기쁜 마음으로 접했던 경험을 시모무라는 회고한다.⁵⁾ 1902년 인천에서의 경험 이외에 시모무라는 조선에서 조선을 경험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후 1910년대에는 일본 내에서 체신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으며 1910년대 후반에는 타이완의 민정장관으로서 그의 관심사는 타이완에 집중되었을 것이고 아울러 타이완을 경험할 기회가 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선을 경험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35년(1902) 의화단 사건 직후 북지(北支)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부(芝罘)에서 인천으로 가, 첫발을 내딛었고 다이쇼기에는 타이완 재직 중에 한 번, 아시히 신문사에 들어가서 한 번, 다시 일개 낭인이 되어 두 차례 조선에 갔으며 최근에 다시 니가타에서 북조선을 찾아갈 예정이다. 작품은 낙수집(落穗集).⁶⁾

그는 조선 내방 경험을 인용문과 같이 간략하게 적고 있다. 타이완 재직

3) 서기재, 『한센병을 둘러싼 제국의학의 근대사-일본어 미디어를 통해 본 대중관리 전략』, 『의사학』 57, 2017.

4) 윤미란,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과 조선 기행』, 『한국학연구』 5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8.

5) 이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은 윤미란, 위의 논문, 404~405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엽서회답 조선과 나』,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흥선영의역, 어문학사, 2007, 381쪽.

기간인 1915년부터 1921년까지 그리고 아사히신문사 재직 시절(1921년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선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선의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다녀간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까지 시모무라는 빈번하게 조선을 다녀가게 되는데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초청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최소 6차례 조선 곳곳을 순회하여 방문하고 강연을 하였다.

이상 시모무라가 조선에 왔던 이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모무라 가이난의 조선 방문 이력

순번	시기	방문 지역	초청인(동행인)	출처
1	1902년	인천	중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인천을 거쳐 감	『엽서회답 조선과 나』,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2	1912년-1926년 사이	미확인	미확인	『엽서회답 조선과 나』,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3	1923년 6월 26일 -1923년 7월 10일	부산, 소록도, 광주, 경성, 평양, 함흥, 부전교원, 대구	조선총독부 간이생명보험기념강연 초청	『東亜の理想』(1937) ⁷⁾
4	1928년 6월 1일 -1928년 7월 5일	부산, 원산, 경주, 대구, 부여, 강원, 군산, 목포, 철원, 함흥, 나남, 회령, 경성, 개성, 평양, 의주	스기무라 소진칸(杉村楚入冠, 저널리스트)	아사히신문사 연재, 『落穂集』(1929) ⁸⁾
5	1935년 또는 1936년	경성	미확인	『ゴルフバッグ』(1936)
6	1937년 여름	여러 곳 추정	조선총독부 시국 대책위원회	『朝鮮・滿洲・支那』(1939) ⁹⁾
7	1938년 9월 초	경성 추정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위원회	『朝鮮・滿洲・支那』(1939) ¹⁰⁾

7) 下村海南, 『東亜の理想』, 第一書房, 1937, 336쪽.

8) 下村海南, 『落穂集』, 博文館藏, 1929.

9) 下村海南, 『朝鮮・滿洲・支那』, 第一書房, 1939, 208쪽.

10) 下村海南, 『朝鮮・滿洲・支那』, 위의 책, 같은 곳.

8	1940년	북조선(방문 예정이라 기록)	미확인	『엽서회답 조선과 나』,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	-------	-----------------	-----	--

시모무라는 조선의 곳곳을 방문할 때마다, 일정에 쫓길 때조차도 기사 수첩에 적을 것 같은 형식의 간략한 메모로 반드시 그때그때의 상황을 남겨 놓았으며 그 메모를 숙소에서 정리하여 기록하였다. 이 기록을 다시 또 정리하여 그는 단행본을 여러 차례 발간하였다. 써서 남기고 그것을 발간하여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시모무라가 조선의 체험 중에서 무엇을 왜 남겼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어떤 저널리스트이자 정치가에게 조선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시모무라의 이상의 조선 여정 중에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선의 경험 중에서 우선 인맥에 관해 쓴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모무라가 1928년 “일개 낭인”으로서 동료 저널리스트 스기무라 소진칸과 조선의 주요 지역을 순례하고 그 때의 경험을 엮어 출간한 『낙수집(落穗集)』(1929)을 비롯하여 시모무라의 인맥에 관해 쓴 글을 분석할 것이다.

시모무라는 조선에 대한 경험을 자신이 직접 글로 써서 남기는 한편, 종전의 경험을 지역별로 모아 다시 쓰기를 하여 『종전비사(終戰秘史)』(1950)¹¹⁾를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 단행본에서 일본인들의 조선 체험을 『조선탈출기(朝鮮脫出記)』라는 제목으로 다시 쓰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글을 다시 쓰기하고 있는지, 원래의 글을 어떻게 다시 쓰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왜 다시 쓰기를 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11) 下村海南, 『終戰秘史』, 講談社, 1985. 초판은 같은 제목으로 쇼샤(小社)에서 1950년에 간행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재판을 인용하였다.

2. 시모무라 가이난의 조선 - 일본 교류인에 관한 기록

시모무라는 “1928년 6월 하순¹²⁾ 스기무라 소진칸(杉村楚入冠)¹³⁾과 함께 조선으로 향했다.” 왜 조선으로 향했는지 목적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 조선 팔도를 거쳐 중국 지난(濟南)까지의 대장정을 두 달간 떠났다. 서두에서 여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산에 상륙한 이후 자동차로 동래, 원산을 거쳐 불국사에 갔다가 석굴암을 참배하고 경주의 유적을 방문하고 대구에 왔다.

대구에서 철도로 대전에 이르니 호남선으로 갈아타고 백제의 옛 도읍 부여를 방문하고 강원, 군산, 목포에서 팔구포로 가서 놀았다.

경성에서 북조선에 들어가는 길, 철원에서 나뉘어져 내금강, 외금강의 경승을 탐방하고 해로로 원산에 들어갔다가 또 북상하여 함흥, 나남을 거쳐 두만강반, 회령에 닿았다.

강을 건너 간도 용정촌에 도착,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 다시 경원에서 세 번 강을 저어 훈춘(琿春)을 방문하였다.

훈춘에서 네 번 강을 건너서 경흥(慶興)에 들어가 강을 사이에 두고 포시에트만(Posyet Bay)을 조망하고, 길을 되돌려 웅기령(雄基嶺)을 넘어 웅기항에 가서 육로 나진을 왕복하고 해로 청진에 닿았다.

남하하여 다시 경성에 들어와 또 북상길, 개성에 고려의 고도(古都)를 그리며 겸이포에서 대동강을 저어 진남포에 내려가서 평양으로 가는 길, 강서 낭랑의 고적을 방문하고 철도로 신의주에 들어와 다시 의주의 통군정에 오르고 압록강에서

12) 부산에 도착하여 동래온천에서 첫날의 여정을 서술한 후 말미에 “6월 1일 동래온천에서(下村海南, 『落穂集』, 博文館藏, 1929, 6쪽)”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뒤 날짜가 계속 이어지므로 서문의 “6월 하순”은 “6월 초순”의 오키로 보인다.

13) 스기무라 소진칸(杉村楚入冠, 1872~1945)은 신문기자, 수필가, 하이쿠작가이다. 1903년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후의 아사히신문사)에 입사, 1911년에 색인부를, 1924년에는 기자실사부를 업계 최초로 창설하였다. 관동대진재 이후 지바현의 아비코에 있는 저택에서 수필집 『호반음(湖畔吟)』 등의 많은 작품을 출판하였다. 한편 하이쿠결사 ‘호반음사(湖畔吟社)’를 조직하여 하이쿠시인을 육성하고 아비코골프(我孫子ゴルフ)클럽을 창립하였다.

배를 타고 안동현에서 내려 만주로 향했다.

평톈(奉天)에서 장쉐량(張學良) 장군과 회견하고 뤼순(旅順)과 다롄(大連) 사이에서 소요하고 발해를 횡단하여 바이허(白河)를 거슬러 텐진(天津)에서 놓고 선통제 단기단장군을 방문하고 베이징 성의 내성 외(外) 만수산(萬壽山), 서산(西山), 팔방산(八方山)의 경승을 살피고 길을 돌려 텐진에서 해로로 칭다오(靑島)에 상륙하여 생생한 전장(戰場)의 흔적을 보고 지난(濟南)에서 문상하였다.

그간 2개월의 객로 소진칸(楚入寇)과 번갈아 글을 오사카이사히(大阪朝日) 지상에 게재하고 또 소진칸은 신선로(神仙爐) 30여 편을 조선이사히(朝鮮朝日)에 연재하고 나도 또한 낙수집에 백여 편을 속재(續載)했다.

지금 그것을 모두 모아 다시 여정 순서로 조직하여 중복되지 않게, 빠진 것은 보충하고 소진칸 군의 필체인 것을 교대로 여기에 10편 140여 절을 실는다.¹⁴⁾

이 순례를 떠났던 1928년 당시의 시모무라는 오사카이사히신문사에 1921년부터 근무하고 있었다. 동행했던 스기무라 소진칸은 도쿄이사히신문사에 재직 중이었다. 순례를 다녀와서 시모무라는 순례 기행문을 오사카이사히신문에 연재하고 이 글들을 정리하여 1929년 『낙수집(落穗集)』을 발간하였다. 그는 이듬해 1930년에 이사히신문사 부사장이 되었다. 이번 여행이 적어도 이사히신문사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스기무라와 시모무라가 여행의 목적을 뚜렷이 밝혀놓은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조선총독부 등 일제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어서 수행차 간 것인지, 이사히신문사 자체의 어떤 기획으로 취재여행을 간 것인지, 혹은 일제 기관과 이사히신문사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이루어진 사업의 일환이었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1928년 6월 1일 스기무라 소진칸이 남긴 기록을 참고하면, 부산에 도착해서 지사, 부윤, 상의회장 등이 발기한 환영회에 참석 후 밤에는 공회당에서 시모무라 등이 강연을 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여정을 글로 남겼다.¹⁵⁾ 어느 지역을 가든 지역 주요 인사

14) 下村海南, 『落穗集』, 博文館藏, 1929, 1~2쪽.

15) 下村海南, 『落穗集』, 위의 책, 6쪽.

들과 함께 환영회와 강연은 기본적으로 행해졌다. 강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당대 일제의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을 것은 자명하다.

스기무라가 쓴 부분에는 조선이 일본에 비하여 송충이가 많다든지, 백의가 조선 민중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든지, 조선 부인은 정조를 너무 강조당해서 오히려 간통과 태아살해를 많이 저지른다거나, 나무를 뿔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실물 애호심이 없다는 등의 자기 기준에 의한 가치판단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¹⁶⁾

반면 시모무라의 글에서는 조선에 관한 스기무라 식의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시모무라의 서술은 대부분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조선에 관한 선부른 판단을 지양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런 그가 기행문에서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의 인맥 혹은 지인들을 명확히 적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우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사십 년 전의 동창이며 사십 년만에 우연히 재회한”¹⁷⁾ 바바 제이치로(馬場是一郎)가 있다.

바바 제이치로(馬場是一郎, 1870~1930)는 나가사키(長崎) 출신으로 1909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0년 조선의 군주사(郡主事)에 임용된 이래 1915년 조선총독부 촉탁, 박물관 촉탁, 경성미곡상조합(京城米穀商組合) 이사를 거쳐 1923년에는 함경남도 함흥군수로 재직하였다. “군치상(郡治上)의 많은 공적 중 산미개량조합(産米改良組合) 설치, 각 학교의 내부 개선 등을 특필(特筆)할 만함”¹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운젠시립미나미구시제일소학교(雲仙市立南串第一小學校)의 전신인 아라마키소학교(제오대학구 제삼중학구 아라마키소학교, 第五大学区第三中学区荒牧小學校)의 초대 교장을 지낸 바바 류조(馬場立造)이다.

시모무라와 만난 1928년의 시점으로부터 사십 년 전, 1888년 즈음에 시모무라는 만 14세, 와카야마중학(和歌山中学) 시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제

16) 下村海南, 『落穂集』, 위의 책, 7~15쪽.

17) 下村海南, 『落穂集』, 위의 책, 19쪽.

18) 『함경남도 사업과 인물명감(합흥)』, 107(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im_215_40187, accessed 2020.10.03)

일고등학교(第一高等學校) 졸업한 후에 1898년에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에 입학하였고, 바바도 나가사키의학교(長崎醫學校)를 중퇴하고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에 입학, 1909년에 졸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사십 년 전이 정확히 사십 년이 아니거나 혹은 삼십 년의 오기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모무라와 바바는 도쿄제대 법과대학 동창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바바는 1928년에 함흥군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시모무라 일행이 원산에 갔다가 경주 불국사로 갈 때 원산에서부터 계속 동행한다. 바바는 1920년부터 양산의 부부총과 유물을 발굴, 조사하는 데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1927년에 출간하였다.¹⁹⁾ 그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시모무라 일행의 불국사 기행에 안내자로서 모로카 히데오(諸鹿央雄) 경주박물관장과 함께 동행하였다. 시모무라가 사십 년 만에 동창생 바바를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시모무라와 바바는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모무라는 조선에서 조선을 연구하며 살고 있는 동창생 바바에게 조선에 대해 안내받고 경험하면서 조선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바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6월 8일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시모무라 일행이 광주 송정리역(松江里驛, 지금의 광주송정역)에 도착했을 때 “전남지사 석진형 군이 일부러 광주에서 와서 장성까지 차로 함께 하며 송영(送迎)의 의를 표”²⁰⁾했다고 적고 있다. “전남지사 석진형 군”은 “식민지 지배체제와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식민지 민중 또는 시민의 이익을 그 한계 내에서나마 확보하려고 애쓴 『몽조(夢潮)』의 작가 반아(槃阿) 석진형(石鎭衡)”²¹⁾을 가리킨다. 석진형이 “도쿄 유학 중 가이난의 재정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사제의 관계가 있다”²²⁾고 적고 있는데, 석진형과 시모무라의 인연의 끈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19) 馬場一郎, 小川敬吉,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朝鮮總督府古蹟調査委員會 編, 『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冊』, 朝鮮總督府, 1927.

20) 下村海南, 『落穂集』, 위의 책, 60~61쪽.

21) 『친일 극복을 위한 '제3의 시각'』(『경향신문』, 2006.11.20)에서 최원식은 석진형을 ‘친일온건파’로 명명하며 이와 같이 부연하였다.

22) 下村海南, 『落穂集』, 위의 책, 61쪽.

석진형은 사정이 어려운 와중에도 일본에 유학할 기회를 얻어 도쿄 호세 대학(法政大学)의 전신인 화불법률학교(和佛法律學校)에 입학, 3년간 고학하여 1902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한다.²³⁾ 이후 조선에 돌아와 1905년 가을부터 법무 법률기초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부동산 조사작업을 계획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온 도쿄대학 민법학 교수 우메 겐지로(梅謙次郎)의 통역인 역할을 겸하기도 하였다. 석진형은 우메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마도 우메는 유학 시절 석진형의 스승이었던 모양이다.²⁴⁾

우메 겐지로는 당시 도쿄대학 교수였으나 화불법률학교에서 학감을 겸하였으며, 이후 20여 년 간 학감, 교장, 초대총리로서 후대 호세대학의 설립과 발전에 공헌하였다. 따라서 도쿄대학을 졸업한 시모무라 또한 우메 겐지로 교수의 사사를 받았을 터이고 이러한 연휴로 석진형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석진형이 일제 친화, 협력을 통하여 관료의 길에 들었을 때 그 배후가 되었던 일본 유학 시절의 인연 중에 우메 겐지로와 함께 시모무라와의 인연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인연은 조선에서도 필연적으로 또는 우연히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마지막으로 시모무라의 조선인 인맥으로 들 수 있는 사람은 잡지 『모던일본』을 발행했던 마해송이 있다.

유락초(有樂座)에서의 만나절

1. 상병장사(傷病將士)의 위안

(1939년-인용자) 8월 6일 오전에 이즈(伊豆) 이즈초(伊豆町)에서 개최되는 문화강좌를 위해서 전날 도착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8월은 무더위의 한중간이고, 6일은 일요일이다. 좀더 좋은 시절이라면 가와나(川奈)의 골프장에 갈 좋은 기회이나 아무튼 어제, 오늘은 쉴 새 없이 물가위원회에 쫓기고 있다. 후일 일일 할당이 잘못되지 않도록 강연은 일요일로 정해졌고 만약

23) 최종고, 「반아 석진형」, 『사법행정』, 1984, 83쪽.

24) 최원식, 「반아 석진형의 「몽조」」,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 289~299쪽.

그 전후에 지장이 없으면 가와나 행도 편이, 선처할 마음을 하고 있었다.

과연 전날에는 물가위원회의 섬유품회 개최 소식이 있었다. 토요일에도 있어 정오에 끝나면 곧 이토(伊東)로 향하여 오랜만에 온천이라도 하자고, 쌓여 있는 원고도 쓰려고 마음을 잡았더니 그 전날 모던일본에서 내일 유락초에 꼭 얼굴을 비춰달라는 전화가 왔다. 역시 그러고 보니 상병장사 위안을 위하여 룻과(후쿠키와 룻과(古川ロッパ)), 1930년대 일본의 대표 코메디언, 에세이스트-인용자)극에 초대 권이 와 있었다. 12시 반부터 마치네(マチネ)였다. 그렇다면 위원회 다음으로 약간 늦어도 가보자, 그리고 **모던일본사장 마해송 군에게 경의도 표하자. 위원회의 모습도 보자는 마음**으로 6일 아침 집을 나와 상공성(商工省)의 위원회로 향했다. 정오에 폐회되었다. 거기서 유락초에 갔다. (하락)

3. 마해송과 룻과(綠波)

(전략)

모던일본의 사장 마해송은 조선인이다. 14, 5세 병사에게 이끌려 일본에 왔다는 사전 선전에서부터 문예춘추사의 오랜 생활에서부터 모던일본의 사장이 된 마군에 대해 간단한 그러나 어쩐지 정한 소개가 있었다. (하락)

4. 기쿠치 간(菊池寛) 군의 인사

(전략)

사실 마해송을 위해 후쿠키와 룻과를 위해 도자은행(當座銀行) 경영자를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²⁵⁾(강조-인용자)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1939년의 시점에서 시모무라는 인생의 낙이라 할 수 있는 골프를 미루고 일부러 시간을 할애하여 유락초로 향했다. 시모무라는 글에서 상병 군인의 위안 공연이라는 데에도 이 모임의 의의를 두었지만 모던일본사 관계의 기쿠치 간과 마해송의 초대를 챙기며 이에 애써 응대하려는

25) 下村海南, 『持久戰時代』, 第一書房, 1940, 323~327쪽.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마해송과 안면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시모무라는 마해송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해송과 인연이 생긴 것은 모던일본사 관계의 일을 하면서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해송이 일본에서 잡지 편집과 경영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쿠치 간의 격려와 배려가 있었다. 마해송은 1924년 기쿠치 간 덕분에 잡지 『문예춘추(文藝春秋)』의 편집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폐병 치료와 요양 이후 1930년에는 『모던일본(モダン日本)』을 발간하는 잡지사 사장이 될 수 있었다. 1939년 『모던일본』 조선판이 나왔을 당시, 기쿠치 간은 “시국 하에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마 군에게도 보람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 수년간에 걸쳐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아마 훌륭한 것이 나오리라 기대”²⁶⁾ 된다며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 모던일본사에서 임시 중간 ‘조선판’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다. 조선이라면 금강산과 기생 정도 외에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에도 문단이 있고 많은 작가가 있지만 아직 작품을 접한 적이 없다. 다행히 이번 증간호에 다수의 조선 작품을 소개한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즐거움이고 기대가 크다.²⁷⁾

마해송이 계획하여 1939년, 1940년 두 차례 발간된 『모던일본』 조선판에는 조선과 일본의 여러 문학가들의 글이 실렸는데, 기쿠치 간의 글뿐만 아니라 시모무라의 글과 참석 좌담회도 실렸다. 시모무라는 자신의 조선 체험에 관하여 쓴 글을 게재하고 조선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기도 하였다.²⁸⁾ 이후 기쿠치 간과 시모무라는 1942년 11월에 열린 제1회 대동아문학

26) 『조선판에 부치는 말』,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홍선영 외 역, 어문학사, 2007, 106쪽.

27) 『조선판에 부치는 말』, 위의 책, 같은 쪽.

28) 시모무라 가이난의 글(좌담회)로 『조선판에 부치는 말』, 『시라히게묘진(白髮明神)』, 『<엽서 회답> 조선과 나』(『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홍선영 외 역, 어

자대회에서 각각 의장과 좌장으로 함께 참석하게 된다.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시기에 당도했다.

(중략)

그런 어느 날, 기쿠치 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모두 창씨를 하라구 그런다지? 마씨란 성은 일본에도 있드군! 내가 『성씨고(姓氏考)』를 조사해보았지. 성을 같지 않아도 될 거야…….”²⁹⁾

(딸의 이름을 부탁하기 위해-인용자) 나는 곧 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명을 청하는 일도 그렇거니와 안산을 보고하기 위해서라도 찾아뵈어야 할 일이지만 공습에 쪼들려 움직이기 어려웠고, 또 시간도 급했다. 은사는 흔연히 이름을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한 시간 후에 전화로 이름을 받았다.

“진주의 주(珠) 자와 자네 이름에서 한 자 따서 ‘주해(珠海)’라고 생각해봤는데…… 일본 말로는 좋은 이름이 되는데 조선 이름으로도 이름이 될까?”

그런 스승의 성음(聲音)을 들으며 나는 어쩔 수 없는 감격에 잠겼었다. 조선 이름으로도 이름이 될까, 라는 말과 그의 출세의 대작(大作), 동경과 오사카의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연재되어 일세를 풍미했던 장편소설 『진주부인』에서 한 자를 딴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육십 일이 지난 날, 가족은 모두 귀국하였다.

주해는 중학생, 스승은 이미 없다.³⁰⁾

기쿠치 칸은 마해송의 창씨개명 걱정을 해주고, 갑작스럽고 기분 상할 수도 있을 자식 작명 부탁에도 진심으로 응했다. 그리고 그렇게 응해준 기쿠치 칸에게 마해송 역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마해송은 1963

문학사, 2007) 그리고 『조선의 여관』,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일본잡지 모던 일본과 조선 1940 원역 <모던일본> 조선편 1940년』, 홍선영 외 역, 어문학사, 2009.) 등이 있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윤미란의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과 조선 기행』(앞의 논문)을 참고. 29) 마해송, 『명명(命名)』, 『마해송 전집 10 수필집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지성사, 2015, 493쪽.

30) 마해송, 『명명(命名)』, 『마해송 전집 10 수필집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지성사, 2015, 495~496쪽.

년 2월 “일본의 잡지사 ‘문예춘추신사(文藝春秋新社)’의 초청장”³¹⁾을 받고 도일(渡日)하여 기쿠치 간이 지하에서 끌어준 것 같으면서 기쿠치 간 묘역에 가서 성묘를 한다. 이렇듯 마해송과 기쿠치 간의 글 속에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신뢰가 명확히 드러난다.

기쿠치 간과 마해송 사이의 신의를 시모무라도 인지하고 있었던 듯이 시모무라는 기쿠치 간과 마해송 모두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관계를 맺어가려 하였다. 그래서 유락초의 행사도 애써 참여하였으며, 이후 『도전일본』에 글도 적극적으로 게재하였던 것이다.

3. 종전 이후 조선의 체험에 대한 관심

시모무라는 조선(혹은 조선인)에 관한 체험을 글로 써서 남기는 한편 종전 이후 일본인들의 조선 체험기를 재창작하고 있어 주의를 끈다. 시모무라는 종전의 상황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록해 놓기 위하여 1950년에 『종전 비사(終戰秘史)』를 간행하였다. 이 저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 내의 상황을 비롯해 각국의 상황을 세밀히 기록해 놓은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 책의 후반부 제63장부터 제65장까지 「조선탈출기」라는 제목의 장에서는 조선의 종전을 다루고 있다. 그는 “조선의 종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삽화도 있으나 나는 호리 게이사쿠(堀啓作) 전 중위와 그의 젊은 부인과 젓먹이 아이의 조선 탈출기를 공개하고자 한다”³²⁾면서 ‘만주’에서 조선으로 와서 1년 반 이상 전전하다가 일본으로 인양된 호리 가족의 이야기를 자신의 필치로 재창작하였다.

닿는 곳마다 조선인의 인정미를 느꼈다는 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 이 글 속에는 이러한 다양한 정이 깊은 조선인에 대해서는 모두 본명을 적고 있지 않다. 이미

31) 마해송, 『일본에 다녀와서』, 『마해송 전집 10 수필집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지성사, 2015, 681쪽.

32) 下村海南, 『終戰秘史』, 講談社, 1985, 330쪽.

그런 것도 없겠지만 친일가라고 불리고 도리어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는 어떤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또 이 기사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³³⁾

시모무라는 글의 서두에서 위와 같이 호리 게이사쿠의 인양기를 재창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일제 패전 상황에서 조선땅에 있어야 했던 일본인들은 대개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마련일 터, 호리 게이사쿠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선인은 모두 호리 가족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다. 조선으로 향하는 트럭에서 검열을 당하는 상황에서 호리의 옛 군인시절 사진을 감춰준 조선인 승객과 고가의 디프테리아 혈청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어 아내와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그리고 극한의 기아의 상황에서 정성을 다한 도시락과 도시락 아래 조선돈을 넣어준 이전 조선인 동료가 그들이다.

이 선한 조선인 일화 중에서 디프테리아 혈청 주사 일화는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의 인양기에 「하얀 십자가」라는 장에도 등장하는데³⁴⁾ 시모무라의 다시 쓴 이야기와 후지와라의 직접 겪은 이야기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기에 두 이야기를 비교하며 「조선탈출기」의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출판 시기를 살펴보면 후지와라 데이의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이하 『호르는 별』로 지칭함)가 1949년 간행되었으므로 시모무라의 『종전비사』보다 1년 먼저 세상에 나왔다. 시모무라가 후지와라의 책을 보았는지의 여부는 특정할 수 없으나, 두 이야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모무라가 후지와라의 책을 보았다 하더라도 시모무라의 재창작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두 이야기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3) 下村海南, 『終戦秘史』, 위의 책, 331쪽.

34) 후지와라 데이, 『호르는 별은 살아 있다』, 위귀정 역, 청미래, 2003. 일본어 초판은 藤原てい,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 日比谷出版社, 1949.

[표 1] 『하얀 십자가』(『흐르는 별은 살아있다』)와 『조선탈출기』(『증전비사』) 비교

순번	구분	『하얀 십자가』	『조선탈출기』
1	주인공 이름	후지와라 데이(藤原てい)	호리 게이사쿠(堀啓作)
2	주인공 직업	기상대 직원(남편)의 부인	군인(중위)
3	가족	남편과 두 아이	부인과 두 아이
4	배경	황해도 해주 구세병원	개성 ○○의원
5	병명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
6	병자	큰아이	아내와 젓먹이(작은아이)
7	혈청 주사값	천 원	일만 삼천 엔
8	혈청 주사값 처리	현금은 받지 않고 남편의 론진 시계만 받음	현금도, 현물도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접종

『흐르는 별』은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후지와라 부인과 인양될 날을 기다리며 함께 살고 있는 집단의 삶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지와라는 이 책의 간행 이후 여러 편의 소설을 창작하여 발표하는데 일본인, 조선인(북조선인, 남조선인), 소련군, 미군 등에 관한 시각이 바뀌어서 복수의 다양한 이야기로 변주되기도 하였다.³⁵⁾

『흐르는 별』 중 『하얀 십자가』 부분에서 남편과 떨어져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후지와라 부인은 모성애를 발휘하여 끈질기게 디프테리아 혈청을 수소문한 끝에 구세병원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곳에서 의사의 배려로 디프테리아에 걸린 큰아이의 목숨을 살린다.

(디프테리아 혈청 주사를 아이에게 놔 주는 의사를 보고-인용자) 나는 시계와 3백 원을 가지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의사에게 먼저 사죄를 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돈을 다 준비하지도 못해 놓고는 주사를 놓아 달라고 해서……”

(중략)

35) 김에립, 『중단한 자, 황당한 텍스트 :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精神誌)』, 『상허학보』 34집, 2012.

“제가 이 시계를 천 원에 사겠습니다.”

“제가 전부 부담하겠다고요.”

이번에는 확실히 일본어로 말했다.

(중략)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3백 원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 그러고는 거래가 끝났다는 듯 자기 자리로 향하다가 “내일 한번 더 오십시오.” 하고 말하고는, 조수에게 다음 환자를 부르라는 눈짓을 했다.

내가 맥없이 일어서려고 하자 의사는, “희망 잃지 마시고, 돌아갈 때까지 힘내세요”라고 했다.

(중략)

몇 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지었다는 붉은 벽돌 교회의 탑은 우뚝하니 높았다. 그 위에는 일요일마다 울리는 종이 달려 있었다. ‘구세병원’이라고 쓰인 글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얀 십자가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마사히로는 꼭 나올 것이다. 아까 정신없이 달음질했던 다리 위에 서서 봄이 오는 냇가를 내려다보았다. 푸르고 맑은 물에 버들잎이 비치고, 기슭의 연둛빛 잔디에는 빨래하러 가는 조선 사람들의 흰 옷이 아름다웠다. 봄의 냇물은 유유히 흘러갔다.³⁶⁾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후지와라의 글에는 ‘조선인’ 의사가 강조되지 않는다. 교회와 ‘하얀 십자가’ 그리고 ‘구세병원’이 상징하듯이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의 의미에서 조선인 ‘의사’의 ‘선한’ 의료행위가 강조되고 있다. 해주의 구세병원은 의료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 부부가 황해도 해주에 선교부를 구축하고 전도·의료·교육에 힘쓰면서 폐결핵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세우게 된 병원이다.³⁷⁾ 물론 일제 말기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으므로 구세병원의 의사는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글 속에서는 조선인

36) 후지와라 데이, 앞의 책, 104~106쪽.

37) 『세상 즐거움 버리고 조선의 전염병과 싸우다-닥터 셔우드 홀과 고성 김일성 별장』, 『국민일보』, 2020.8.7.

보다는 구세병원과 교회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 시모무라의 『조선탈출기』는 호리라는 전 군인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조선에 1년 반 이상 머물면서 겪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도 디프테리아 혈청 주사 일화가 나온다.

호리 중위의 개성 거리 순례가 시작되었다. 이 잡듯이 살살이 뒤져 개성 거리를 돌아다녀 의사들의 집집마다 3일에 걸쳐 찾아다녔다. 고려 태조의 산릉(山陵)도 왕성 뒤쪽도 만월대 명승도 그의 머리에는 없다. 가는 곳의 인삼밭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3일째에 간신히 ○○의원 ○○의사에게서 혈청제를 찾아냈다.

(중략)

혈청제 덕분에 게이코 부인도 아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 완쾌되었다. 같은 병자도 서너 명 도와주었다. 그런데 김 선생에게 또 끈질기게 늘어졌으나 어떻게 해도 결말이 나지 않았던 것은 약값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 거의 없는 돈 3천 엔을 던져 주고 고작이지만 이것만이라도 하며 내밀었으나 선생은 전혀 받아주지를 않는다. 경성에서는 현재 혈청제 한 대에 1만 3천 엔 하는 약을 만주에서 도망 온 일본인에게 무료로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선생은 ‘후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성립하고 송금이 가능하게 되면 보내주세요. 그때에는 유쾌하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쨌든 받지 않으므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일본인모임 사람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미련을 남기고 개성을 뒤로 했다. 이런 김 선생의 태도를 겪고 나는 머리를 숙인 채로 들지 못했다.³⁸⁾

고가에 팔아 이윤을 챙길 수도 있는 귀한 혈청제이건만 김 의사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에 충실한 인물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고 약값은 전혀 받지 않는다. 조선과 일본이 송금이 가능한 날 유쾌히 받겠다고 마무리되는 이 부분이 바로 시모무라가 재창작하고 싶어 했던 동기가 확실히 전달되는 부분이다. 아래 인용문에서 살펴보면 독립병원의 주임 여의

38) 下村海南, 『終戰秘史』, 앞의 책, 340~341쪽. 초판본은 쇼샤(小社)에서 1950년에 간행되었으나 본고에서는 고단사(講談社) 간행본을 참고하였다.

사를 묘사하고 있는데 시모무라는 여의사의 스승이 도쿄여전의 교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선과 일제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병원(개성에 있는 도립병원-인용자)에 입원 중 주임 여의사의 친절함은 정말로 대단히 말로 다 못할 정도였다. 간호부들을 데리고 회진할 때에는 무심하게 쪽 지나갔으나 틈틈이 혼자서 보고 진찰하고 처치를 하고 허리를 숙여 차분하게 도쿄의 추억을 말한다. 여자의전의 은사 요시오카 야요이(吉岡爾生, 도쿄여의학교,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 도쿄여자의과대학 창립자) 교장에 대한 여담도 나온다. 빨리 평화가 오면 도쿄에 찾아뵙고 싶다, 언젠가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언제나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³⁹⁾

그리고 이야기의 곳곳에 개인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받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는 인물들의 바람이 서술되어 있다. 이 바람은 조선인들의 도움과 배려를 받은 호리 가족을 비롯하여 일본(혹은 일본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조선인들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후지와라의 『흐르는 별』이 전쟁에서 여성으로서 직접 겪어야 했던 고통을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고 똑같은 비극의 발생을 경계하기 위하여 창작되었다. 반면 시모무라의 『조선탈출기』는 비록 전쟁에서 패했지만 조선과 일본의 민족적 차원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뛰어넘은 인간애를 기반으로 역경을 이겨낸 한 일본 남성 가장의 인양성공기로서 공유되도록 창작되었다.

시모무라는 후지와라와는 다르게 『조선탈출기』를 통해서 호리와 조선인의 관계, 혹은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보다 잘 드러나게 일본인의 조선에서의 인양 체험을 재창작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당시 떠돌던 일본인의 인양 체험기-조선체험기를 조선과 일본의 우호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39) 下村海南, 『終戰秘史』, 위의 책, 336쪽.

데 초점을 맞춰 재창작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그의 의도에 맞게 편견 없이 조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호리, 조선 여의사의 일본 유학과 일본인 스승 등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다. 이런 시모무라의 재창작과 공유의 의도가 패전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까지 염두에 두었는지에 관해서는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4. 제국주의적 이상주의를 반영한 시모무라의 조선 서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모무라 가이난은 조선의 체험을 기행문의 형식으로 써서 남기거나 조선 순례에서 만난 일본인 인사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인연을 맺었던 조선인 관계를 드러내는 글을 쓰고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시모무라가 조선에 관한 체험을 적극적으로 쓰고 남기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글들은 어디까지나 일제의 대 조선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작동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1928년의 서술에서 시모무라는 조선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을 절제하고 사실에 관한 기록들을 남기려 하였다. 이후 일제 말기의 글들에서는 일제의 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쪽으로 강화되어 갔다.

한편 새로 쓰고 남기는 작업 외에 시모무라는 종전기 조선에서의 일본인 체험을 재창작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후지와라 데이의 여성 체험 인양기와는 다르게 시모무라의 인양기는 '선한'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고 감명을 받는 호리 전 중위의 조선 체험을 보여주고 있다. 시모무라는 글 속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찾아 확인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공유함으로써 호리와 호리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선에 적대적인 마음보다는 언젠가 다시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시모무라는 일제의 패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관계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국가적 혹은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950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모무라의 시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1. 자료

馬場是一郎, 小川敬吉, 『梁山夫婦塚と其遺物』, 朝鮮総督府古蹟調査委員会 編, 『古蹟調査特別報告 第5冊』, 朝鮮総督府, 1927.

下村海南, 『落穂集』, 博文館藏, 1929.

_____, 『天地: 歌集』, 博文館, 1929.

_____, 『白雲集: 歌集(心の花叢書)』, 日本評論社, 1934.

_____, 『東亜の理想』, 第一書房, 1937.

_____, 『朝鮮・滿洲・支那』, 第一書房, 1939.

_____, 『持久戰時代』, 第一書房, 1940.

_____, 『蘇鉄(新日本歌集)』, 八雲書店, 1945.

마해송, 『명명(命名)』, 『마해송 전집 10 수필집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지성사, 2015.

_____, 『일본에 다녀와서』, 『마해송 전집 10 수필집 아름다운 새벽』, 문학과지성사, 2015.

시모무라 가이난, 『<엽서 회답> 조선과 나』,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흥선영 외 역, 어문학사, 2007.

_____, 『시라히게묘진(白髮明神)』,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흥선영 외 역, 어문학사, 2007.

_____, 『조선관에 부치는 말』,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흥선영 외 역, 어문학사, 2007.

_____, 『조선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는 좌담회』,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흥선영 외 역, 어문학사, 2009.

_____, 『조선의 여관』,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40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40년』, 흥선영 외 역, 어문학사, 2009.

『대동아문학자대회 회의록』, 광형덕 옮김, 소명, 2019.

『함경남도 사업과 인물명감(함흥)』, 107(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im_215_40187, accessed 2020.10.03)

2. 단행본

후지와라 데이, 『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 위귀정 역, 청미래, 2003.

3. 논문

김예림, 『중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 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精神誌)』, 『상허학보』 34집, 2012.

서기재, 『한센병을 둘러싼 제국의학의 근대사-일본어 미디어를 통해 본 대중관리 전략』, 『의사학』 57, 2017.

윤미란, 『시모무라 가이난(下村海南)과 조선 기행』, 『한국학연구』 5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8.

최원식, 『반아 석진형의 『몽조』』,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

최원식, 『친일 극복을 위한 '제3의 시각'』, 『경향신문』, 2006.11.20.

최종고, 『반야 석진형』, 『사법행정』, 1984.

『세상 즐거움 버리고 조선의 전염병과 싸우다 - 닥터 셔우드 홀과 고성 김일성 별장』, 『국민일보』, 2020.8.7.

Simomura Kainan's experience of Joseon and sharing

Yun, Miran*

Simomura Kainan(下村海南), a Japanese journalist, politician, and bureaucrat, experienced Joseon about eight times and wrote about the experience. In the 1928 travel document of the Joseon, Shimomura tried to avoid premature judgments about Joseon, and to reveal realistic exchanges with Koreans such as Seok Jinhyeong(石鎭衡) and Ma Haesong(馬海松).

Meanwhile, Shimomura sought to share with Japanese readers by researching and recreating the Japanese experience of the end of the Pacific War in Joseon after the defeat. Hujiwara Tei(藤原てい) tried to reveal the pain she had to suffer as a woman in the war through "The Flowing Star Is Alive". On the other hand, Shimomura re-created Fujiwara's novel as "Escape from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mperial idealism. Through this, he attempted to share with his readers the success of a Japanese male head who overcame adversity based on humanity that transcend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Japanese of dominating and dominated.

Key words: Simomura Kainan(下村海南), Experience of Joseon, Seok Jinhyung(石鎭衡), Ma HaeSong(馬海松), Hujiwara Tei(藤原てい), Recreating, Sharing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21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18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28일

* Research Professor of Inha Univ. Center for Korean Studies